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2.(수) 11:00
(지면) 2026. 9. 3.(목) 조간

배포 2026. 9. 2.(수) 06:00

미국에 연면적 10만 m² 규모 민관합작 초대형 물류센터 본격 운영 개시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 공동투자,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 물류센터 확보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엘우드(Elwood)에 우리 물류기업과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공동투자하여 건설한 초대형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29만 5천m²(8.9만 평), 연면적 10만 3천m²(3.1만 평)로 축구장 14개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물류센터이며, 대형화물차 입출고를 위한 130개 도크 등 최적의 물류처리시설을 자랑한다.

최신 인프라 외에도 특히 주목할 부분은 뛰어난 접근성과 지정학적 위치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엘우드 지역은 시카고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 떨어져 있으며, 미국 최대 물류허브(Centerpoint Intermodal Center)와 5.5km 이내로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틀 내 배송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5~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도 2022년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받아 이루어 낸 성과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1조 원을 조성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자산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0개소의 민관합작 물류센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한 물류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진출 국내 수출입기업에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관합작투자 외에도 해외물류시장 정보제공과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한울 (051-773-5750)
		담당자	사무관	이길호 (051-773-5757)

참고 1

미국 엘우드 물류센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글로벌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물류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중

* (우리부) 해당건 해외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에 선정(22년)하여 지원

** (해진공)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과 합작투자 및 금융지원 추진 중이며, 총 7개소 해외물류센터('26.8.1 기준) 확보 지원 중

□ 사업 개요

- (개요) 해양진흥공사와 CJ대한통운이 설립한 미국의 합작법인에서 엘우드에 신규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본격적인 운영 개시

- (위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엘우드 지역

* 시카고 도심에서 약 72km, 美최대 물류허브(Centerpoint Intermodal Center)와 5.5km 이내 위치



- (시설 규모) 대지면적 295,389m²(약 8.9만평), 연면적 102,775m²(약 3.1만평)
 - 층고 40ft(약 12m), 130개의 도크 설치하여 최적의 물류처리 능력 보유
- (향후 계획) KOTRA에서 지정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혹은 미 정부에 Foreign Trade Zone 신청 등을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참고 2

물류센터 전경

